

---

# 영드 분석

## <오만과 편견 다시쓰기>

---

백진솔

### <오만과 편견 다시쓰기 (Lost In Austen)> (영국TV 2008.09)

---

- #1 <오만과 편견 다시 쓰기>의 인기원인?
- #2 오늘날의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?  
어떻게 우리 시대의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가?
- #3 <오만과 편견 다시쓰기>만의 새로움은?  
어떤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?

# #1 인기의 원인 (원작과 각색본 비교)

## #1 원작의 인기의 원인은 무엇일까?

“여성의 시선으로 오만과 편견을,  
엘리자베스를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.”를 생각해봤다.

그것도 여성이 억압 당하는 사회 속에서,  
〈오만과 편견〉 속 엘리자베스의 모습은 **세상 속에서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 
자아의 ‘대리 해방감’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을까.**  
자신의 억압된 자아의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.

**사회 속에서 언행을 제한받는 여성의 시선에서,  
〈오만과 편견〉 속 엘리자베스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해방이었던 것이다**

## #1-2 <다시쓰기>의 인기의 원인은 무엇일까?



‘사만다 프라이스’  
라는 현대적 인물을  
<오만과 편견>에 등장  
시킴으로써,

현대인이 가질 법한  
<오만과 편견>에 대한  
판타지를 구현해보았  
다는 것이 아닐까.

## #1-2 <다시쓰기>의 인기의 원인은 무엇일까?

A1-1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, 누구나 한 번쯤 이야기 속 삶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상상해보기 마련이다. <오만과 편견 다시쓰기>를 통해, **대리만족하거나, 자신만의 상상과 비교해볼 수 있어서는 아닐까.** 자신이 잘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, 내용을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.

A1-2 **현대인의 시선과 이해, 독자로서의 시선과 이해를 작품 속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.**

A1-3 <오만과 편견>이라는 **작품이 가져다주는 주제와 그 일깨움을 한 번 더 깊이 일깨워 주기 때문은 아닐까.**

‘사만다 프라이스’  
라는 인물을 통해,

**엘리자베스가  
오만과 편견에서 겪었을  
그 속내와 마음들을  
더 깊게 전달하고 있는.**

<그 답은 뒤에서 더  
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>

---

## #2 오늘날의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. & 어떻게 우리 시대의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가?

---

### #2-1 여성관의 재정의

---



현대에서 온 아만다가  
'제인과 베넷부인'에게 여성관을  
끊임없이 재정의  
하도록 돕는다.

**“여성의 삶은  
인내하는 삶이 아니에요.  
우린 그들을 바꿀 수 있어요”**

## #2-1 여성관의 재정의



드라마 말미에,  
베넷부인이 캐서린 여사에게, 제인이 콜린스에게  
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

“당신은 위선자다, 상스럽게 허세나 부린다.  
카드게임 하면서 술수나 부리고,  
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휘젓고 다니다니. 당신을 거  
꾸로 들어서 엠브로시아의 우리로 쳐 넣고 싶다.”

“입다물어 멍청아. 저 얼간이(콜린스)와 같은 종자들에게  
우리 엄마의 딸, 내 동생들을 시집 보낼 수 없다.”

## #2-2 인종차별주의 비판 (달라진 세계관)



200년 후로 온 ‘달시’

‘인종차별’이라는  
과거의 관념 안에 갇힌 달시는  
버스 안에서 흑인을 보고 “니그로”  
라고 함부로 말한다.  
이에 아만다가 다그친다.

**과거의 그릇된 관념비판**

## #2-3 자본가의 부흥



콜린스를 통해,  
당대 귀족의 생각을  
보여주고 있다.

**부흥하기 시작하는  
신흥자본가에 대한 반감**

; 상업으로 벌어들인 돈에  
탐탁지 않아하는

## #2-3 자본가의 부흥



피아노를 쳐보라고 하는  
빙리 여동생의 요구에,  
노래를 부르는 아만다.

200년 전 사람들에게  
자본주의 도시 네온사인 관  
련된 노래를 부르는

**다가오는 시대를 암시**

## #2-3 자본가의 부흥



콜린스와 결혼을 취소하고 난 이후의, 일을 걱정하는 제인.

이에 빙리는 “아메리카에서 새 출발 할 수 있다”며, 오늘날 현대인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.

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유를 안다. 신흥자본가계급인 빙리는 영국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으며, 미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암시.

## #2-4 동성애에 대한 담론 (침묵이 아닌, 커밍아웃)



드라마 속에서 빙리 여동생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다.

200년 전이었다면, 아만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었을까.

동성애 금기 역시 하나의 관념일 뿐임을 암시한다.

## #2-5 결혼도 무효일 수 있다



당대 귀족계급이었던  
캐서린의 입으로  
**결혼무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.**

절대적이고, 순종적인 결혼을  
무조건적으로 지키고,  
지속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,  
오늘날처럼 자유롭게  
이혼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를  
보여주고 있다.

---

**#3 <오만과 편견 다시쓰기>  
의 새로움은? 어떤 가치 반영?**

---



## #1 누가 위컴을 나쁘다고 말하는가.



제인 오스틴의 <오만과 편견>을 접한 사람들이라면, '위컴'이라는 인물에 대해 반감을 가지거나, 편견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다. 아만다 역시 마찬가지다.

이에 <다시쓰기>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.

**왜 위컴이  
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가?**

## #1 누가 위컴을 나쁘다고 말하는가.



위컴은 당시 여동생 조지아나를 보호하려고 자신의 거짓소문에 침묵하고 있었다.

위컴은 '위기에 빠진 아만다를 돕고, 사라진 빙리와 리디아 찾는 것을 돕고, Mr.배�트의 부상치료를 돕는다'

아만다는 '제인 오스틴'의 말만 믿고, 위컴에 대해 선견을 가지고, 함부로 판단을 했다.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는 자만을 범해서는 안 된다.

## #2 독자였던 '아만다'가 작품 속을 실제로 느끼는



작품에는  
'엘리자베스'는 현대로 가고,  
'아만다'는 200년 전  
작품 속으로 들어간다.

<오만과 편견 다시쓰기> 속  
세상에서는 리지는 아예 없고,  
아만다만 존재한다.

## #2 독자였던 '아만다'가 작품 속을 실제로 느끼는



아만다의 등장으로  
새로운 흥미로운 장면도 나  
온다.

“베넷부인이 아이들 혼사를  
방해하지 말라고 협박하는”  
것이다.

그런 베넷부인을 직접  
마주하고 느끼는 아만다.

## #2 독자였던 '아만다'가 작품 속을 실제로 느끼는



**머릿 속으로 안다고  
생각하던 것의 가벼움.**

책으로만 가볍게 이해하던 일들을,  
엘리자베스의 상황을 직접 겪으니  
쉽지 않다. 엘리자베스가 당대에  
마주했던 운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,  
마음 깊이 느끼게 되는.  
더 깊이 이해해보게 되는

## #3 절대 운명/인연이란 없다. 작가의 결론마저도



**초기의 아만다는  
원작 <오만과 편견>의 본래 내용에  
만 사로잡혔었다.**

**“엘리자베스 넌 그 사람과 만나야  
될 운명이야. 어서 돌아와”  
“당신은 엘리자베스와 이어져야  
해요. 나는 안 돼요”**

**하지만 정해진 운명/인연이란 없다.  
왜 그래야만 하는가?**

## #3 절대 운명/인연이란 없다. 작가의 결론마저도



그런 아만다에게 제인은 말한다.

“엘리자베스는 스스로 독립을  
선택해 떠난 거라고,  
달시랑 잘해보라고”

당신이 생각하는  
고정된 삶이 모습이 아니라  
당신 삶의 주인공으로 나서라고.

<오만과 편견> 책을 찢어버리는

## #3 절대 운명/인연이란 없다. 작가의 결론마저도



원작과는 다른  
새로운 이야기 전개가  
끊임없이 일어난다.

아만다에게 반한 달시  
제인-콜린스 결혼, 파혼.  
착한 윌컴,  
동성애자 빙리여동생

## #3 절대 운명/인연이란 없다. 작가의 결론마저도



리디아랑 달시의 도망  
아만다에게 반한 빙리  
빙리와 베넷의 결투

등등

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  
고정된 삶의 방식,  
절대 운명,  
절대 인연이란 없다.

## #4 자기 삶을 선택하는 엘리자베스와, 아만다



현대로 갔던 엘리자베스는  
갑자기 현대에 떨어져도 어색하지  
않을 만큼,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 
인물이었다.

머리도 단발로 자르고, 현대복도  
자연스럽고, 카드결제,  
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고,  
노트북을 사용하는데 거침이 없다.

## #4 자기 삶을 선택하는 엘리자베스와, 아만다



그런 엘리자베스는  
작품 말미에 아버지에게  
현대 속 해머스미스로  
돌아가겠다고 한다.

"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."  
"난 변했어요. 내가 본 것들 때문에."

200년을 앞선 엘리자베스의 존재,  
200년간의 작품 속  
그녀의 존재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

## #3 자기 삶을 선택하는 엘리자베스와, 아만다



아만다는 깨닫는다  
"정해진 삶이란 없다는 것을. 자신이 알던  
<오만과 편견>의 삶의 전개는  
그저 제인 오스틴이 생각한 삶이고, 삶의  
방식이며, 삶의 관계일 뿐.

그녀는 주어지는 삶, 수동적인 삶에  
순응하지 않고,  
자신이 사랑하는 달시와 함께 하는  
자기 삶을, 자기 사랑을 스스로 선택한다.

## 〈오만과 편견 다시쓰기〉

〈오만과 편견 다시 쓰기〉만의 고유한 아름다움.

#1 〈오만과 편견〉 속에서 독자가 자연스레 반감을 가질 법한 〈위컴〉이라는 인물을 활용하여, 저자의 말만 믿고 위컴을 미워하는 독자를 일깨운다. 이렇게 기존의 '오만과 편견'에, 또 하나의 '오만과 편견'을 더한다.

#2 〈오만과 편견 다시쓰기〉에서도 주어진 삶이란, 정해진 삶과 인연이란 없음을 일깨운다. "오로지 자신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옳다.

삶을 살고 있다면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." 는 큰 일깨움을 남긴다.

#3 과거의 낡은 관념(여성관, 인종차별, 귀족, 결혼, 동성애)의 해체를 더했다.

Thank you